

북한發 훈풍에 재계·증시 기대 만발...토목·건축주 '깡충'

전경련·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 "경협 활성화 최선"

코스피 장중 2500선 회복...한전·남화토건 주가 상승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경제계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논평을 내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남북정상회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돼 남북 관계에 새 지평을 여는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개성공단 조기가동에 힘을 보태고 북한 근로자의 중소기업 현장 활용 등 남북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상회담 '호재'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된 27일 시장은 훈풍이 불었다. 정상회담 성과가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6.76포인트(0.68%) 오른 2492.4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26일, 반등으로 돌아선 뒤 2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과 미국 증시 훈풍 영향으로 개장과 함께 단숨에 249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2.11포인트(0.89%) 오른 2497.75로 상승 출발한 뒤 오후를 키우며 장중 한 때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7.10포인트(0.81%) 오른 886.49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경협주 급등 속에 886.37로 시작해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대북 제재 해제 등 주요 안보·외교 현안이 해결될 경우 본격 추진될 경협사업에 대한 시장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시장에서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사, 토



2016년 2월 갑작스런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짐을 싸서 나서는 차량 등으로 파주 통일대교 입구가 북적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목·건축 등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 등이 주요 '경협주'로 평가받으며 상승세를 탔다. 특히 정상회담 중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런 내용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겼는데,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 김 위원장의 용단으로 10년간 끊어진 철책을 오늘 다시 이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뒤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다.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사업분야의 코스닥 기업인 대아이아이의 경우 이날 3900원을 기록, 전일보다 25% 오른 채 장을 마치고 유가증권 상장업체인 철도차량 제작 사업 등을 하는 현대로템도 전 거래일보다 4.31% 올랐다. 북한의 전기 설비 증가 기대감에 한국전력(2.82%)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역 대표적 경협주로 꼽히는 남화토건도 지난 18일부터 4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김지을·박기용 기자 dok2000@

"개성공단 2개월내 정상화 할 수 있다"

입주기업 비대위 "재가동 대비" 기업 80% "재입주 희망"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2년 동안 마음고생을 겪었던 입주기업인들도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회담에 개성공단에 대한 의제는 빠져있었지만, 입주기업들은 일찌감치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하기로 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 이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 현실적 문제나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던 제도 정비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2년 넘게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재개가 결정되면 수개월 안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전기와 용수 등 공단 설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진행하면 2개월 만에 정상화할 수 있다"며 "하이테크 업종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개성공

단 문제가 빠지긴 했지만 2, 3차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경협 문제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 대표들도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 전에 방북신청을 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3차례, 현 정부에서 2차례 방북신청을 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또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실시한 개성공단기업 경영상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조건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26.7%, '재개조건 및 상황판단 후 재입주'는 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6%에 달하는 기업들이 재입주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향이 있는 97개 기업 중 77개사(79.4%)는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를 이유로 들었으며, 이들은 '인건비 저렴'(80.3%)을 결정적인 경쟁력 우위 요소로 꼽았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中企

"5월 경기 밝다"

업황전망건강지수 3.7P 상승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5월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석)가 광주·전남 중소기업에 204개를 대상으로 이달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94.4로, 전월(90.7)보다 3.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전월(93.1)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87.9였던 반면, 비제조업이 전월(88.9) 대비 10.2포인트나 상승한 99.1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 경기회복 추세에 대한 기대감과 조기발주 물량 증가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경기전망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90.2→93.1), 경상이익(83.8→85.3), 자금사정(75.2→77.9)은 상승하고, 수출(116.7→91.2), 고용수준(98.3→95.1)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용기자 pboxer@



광주은행 8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7일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26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사진)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올해 11월까지 총 7개월간 지역사회공헌행사와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매일 소정의 활동비 지원을 받으며 사회공헌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는 등 광주은행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게 된다.

발대식 이후 8기 서포터즈들은 '50박스

의 기적' 네 번째 행사를 위해 지역의 영유아 아동들에게 선물할 장병 세제제와 간식, 생필품 등을 직접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광주은행의 감동을 지역사회 곳곳에 널리 전파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2.40 (+16.76) ↓ 금리 (국고채 3년) 2.20% (-0.03)

↑ 코스닥 886.49 (+7.10) ↓ 환율 (USD) 1076.60원 (-4.30)

광주신세계 올 지역인재 장학금 1억3천만원

초록어린이 재단 5천만원 전달...협력사 자녀 수혜대상 추가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26일 '제23기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저소득층 자녀, 공공서 추천 선정 및 봉사활동 우수자, 전통시장 상인 자녀 등이며, 협력회사와의 동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임직 협력회사 자녀를 추가 수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재단에 5000만원을 전달할 것을 시작으로 서구청학재단과 록수장학회 등 순차적으로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남도장학재단에도 장학금을 후원할 수 도권 대학입학생도 지원한다.

올해 장학금 수혜규모는 130명, 1억3000만원이다.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으로 시작한 1995년부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공공서, 장학재단과 연계해 광주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400여명에게 25억여원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깊은 최선을 다하는 지역인재를 돕기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통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트 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